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제214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시아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운(동아이지에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주고받은 발언들을 대형 그래픽으로 처리한 9월 23일자 1면. 텃빈 놀이터 사진 아랫부분에 푸른색 물과 같은 일러스트를 반영해 가독성을 높인 7월 26일자 1면. 그래픽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규모를 한눈에 보여준 9월 4일자 1면.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훈련모습을 클로즈업하고, 착용장비에 대한 설명을 그래픽으로 추가한 8월 28일자 1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과감하고 파격적 1면... 동아일보 확 달라졌네

북핵-계란파동 등 그래픽 활용해서 무거운 이미지 씻어  
뉴스룸 필진 소수정예화... '스타 칼럼니스트'로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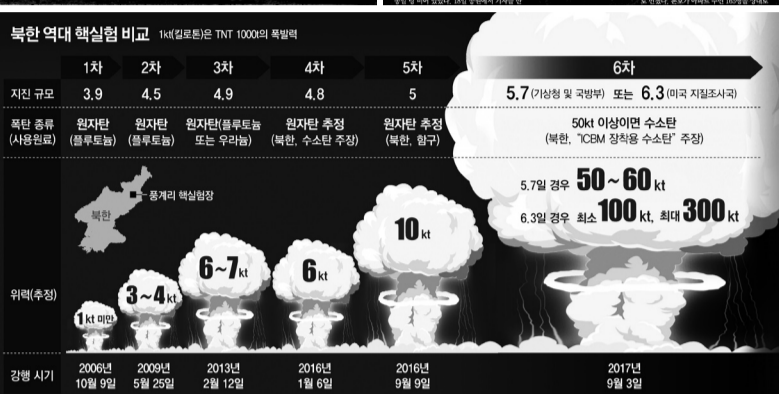
“뉴스디자인팀장은 내 옆에 앉으세요.” 7월 초 오전 편집회의에서 편집국장인 늘 뒷자리에 앉아 있던 뉴스디자인팀장을 불렀다. 이후 국장단 옆자리는 뉴스 디자인팀장의 고정석이 됐다. 어떻게 하면 동아일보의 특유의 진중함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고 파격적인 1면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6월 30일 편집국 부장단 워크숍에서도 ‘신문의 얼굴’에 비유되는 1면의 혁신이 집중 논의됐다. 편집국 각 부서는 매일 아침 자기 지면을 넘어 1면까지 리뷰를 꼼꼼히 하기 시작했다. 타지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A-Pride 콘텐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 독자 시선 사로잡는 시각물

최근 부동산 정책, 북핵 미사일 발사, 계란파동 등 굵직한 사건을 보도하는 동아일보 1면은 취재, 편집, 디자인팀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퀄리티 있는 시각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우선 실험적인 그래픽과 과감한 일러스트 사용이 눈에 띈다. 8월 28일자 1면에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클로즈업된 사진이 실렸다. 단순히 사진만 실은 게 아니라 국방부 출입기자가 분석한 착용 장비에 대한 설명을 그래픽으로 추가했다. 또한 7월 26일자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취재한 ‘일상이 공포로’ 기사는 텃빈 놀이터 사진 아랫부분에 푸른색 물과 같은 일러스트를 반영해 가독성을 높였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비주얼 편집의 하이라이트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보도한 9월 4일자 1면은 그래픽을 통해 역대 최대의 핵실험 규모를 한눈에 보여줬다. 9월 9일자에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이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사정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형 그래픽을 통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북핵의 위협에 대해 공동응징 나섰다는 기획 기사를 실감나게



뒷받침했다.

9월 23일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주고받은 폭탄발언들을 대형 그래픽으로 처리해 북미간 대립구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 달리진 편집국 풍경

비주얼 편집을 만들기 위한 편집국 풍경도 달라졌다. 큰 사건이 발생하면 오전 편집회의에서부터 시각물 아이디어가 논의된다. 편집부와 그래픽팀, 사진부, 취재기자가 기사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회의를 갖고 기사와 그래픽, 사진을 어떻게 융합시킬지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한다. 평소 3단 크기로 써오던 사진을 “4단으로 키우라” “5단 통으로 가져” 등의 과감한 주문도 이어진다. 재난을 보도한 외신 사진의 경우 원경보다는 사람들의 표정과 디테일이 살아 있는 클로즈업 사진이 과감하게 1면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었다. 8월 18일자 1면에 ‘계란-닭고기 이력제 EU식 사육환경 표시’를 비교하는 그래픽은 정부 정책의 변화까지 끌어내는 단독기사였다. EU와 한국의 계란 걸면 표기 정부 차이를 뚜렷하게 대비해 보여준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 국제부와 사진부, 그래픽팀이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3일자 1면 톱에는 서울시 지도를 배경으로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픽을 과감하게 실었다.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장관 사진을 실은 타지와는 차별화된 1면이었다.

### 뉴스룸 필진 개편

차별화된 지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뉴스룸 필진 개편에서도 찾을 수 있다. 8월부터 편집국은 뉴스룸 필진을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압축했다. 스타 칼럼니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기자들에게 최소 2주에 한번씩은 칼럼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뉴스룸은 젊은 기자들이 자신만의 시각과 문체로 칼럼을 쓰는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칼럼이 한달에 1번꼴로 나가다보니 ‘피펫피펫 글을 써서 과연 누가 필자를 알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편집국은 소수정예의 뉴스룸 필진만 남겨 이들이 뛰어난 칼럼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편집국 문화부 전승훈

## ‘업그레이드’된 스튜디오에서 즐기는 ‘더 깊은’ 채널A 뉴스

메인뉴스 스튜디오 ‘22m 비디오 월’ 세련된 록 연출  
종편 첫 ‘뉴스터치’, 이웃의 삶 소개하는 ‘피플A’ 눈길

채널A 뉴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찾아왔다. 넓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 스튜디오에서 앵커와 취재기자들이 더 깊고, 더 생생해지고, 더 친절한 뉴스를 전달한다. 채널A 메인뉴스를 진행하는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1층 스튜디오 리뉴얼 공사가 9월 중순경 마무리됐다. 개국 이후 메인 스튜디오의 전면 보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메인 스튜디오 변신의 핵심은 가로 22m 길이의 ‘비디오 월(video wall)’로 채워진 무대다. 채널

A 뉴스의 혁신을 펼쳐나갈 이 스튜디오는 개방감이 느껴지는 화면을 통해 젊고 세련된 룩(LOOK)을 연출하고 있다. 인테리어 장식을 최소화하는 대신 비디오 화면의 연속성을 극대화했다. 스튜디오 리뉴얼과 맞물려 9월 18일부터 메인뉴스도 과감한 변신에 나섰다. 오전엔 <뉴스A LIVE>가, 오후엔 <뉴스A>가 대한민국의 ‘지금’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뉴스A LIVE>는 천상철 정치부 차장과 성시은 기자. <뉴스A>는 김승연 정치부장과 여인선 기자가 영

커를 맡았다.

<뉴스A>는 분석이 강한 뉴스를 표방한다. 그날의 핵심 이슈를 대형 비디오 월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뉴스분석’이 대표적이다. 보도본부 부차장급 기자 7명이 ‘이슈 해설사’로 나선다. 젊은 기자 3명이 영상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뉴스터치’는 종편 최초로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진행한다. 커피전문점 직원, 소방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무명 선수 등 우리 이웃들이 맘 홀리며 사는 모습을 담은 ‘피플A’ 코너도 신설됐다. <뉴스A LIVE>는 현장에 발 빠른 뉴스다. ‘현장충동’은 코로스트로크가 가능한 신형 유팩을 활용해 뉴스가 있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전달 기획 뉴스의 취재 기자가 출연하는 ‘현장 인



(뉴스A LIVE)를 진행하는 천상철 차장과 성시은 기자. (뉴스A)의 여인선 기자, 김승연 정치부장(왼쪽부터).

사이드’는 리포트에 담지 못한 궁금한 뒷얘기를 전한다. 보도본부 뉴스노베이션팀 김중수

동아의 세련된 변화, 세상이 주목합니다.

동아가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은 퀄리티 있는 시각물로 독자의 눈을 사로잡고, 채널A 뉴스는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들은 <하트시그널>의 ‘대박’ 이후 한층 더 재밌고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입사한 8명의 신입 사원들, 동아를 더 새롭게 만들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네요.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 “색다른 포맷과 재미” 가을 물들이는 채널A 신규 프로그램

〈도시어부〉 타깃 시청자인 40대 남녀에게 골고루 인기  
〈관찰카메라〉 대상 넓히고 〈풍문으로...〉는 MC-패널 교체

2017년 가을을 맞이해 채널A가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들로 찾아 왔다. 색다른 포맷과 다양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낚시 여행 버라이어티 〈도시어부〉

9월 7일 첫 방송된 〈도시어부〉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자타공인 낚시꾼 이덕화·이경규·마이크로닷이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자신들만의 황금어장으로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도시어부〉는 첫 방송에서 2.1%(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본격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타깃 시청자인 40대 남녀에게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있다. 9월 21일 3회 본 방송에선 남성 40대 타깃 시청률 1.89%를 기록했다. 또 9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재방송에서는 여자 40대 타깃 시청률 1.59%, 9월 24일 일요일 낮 12시 재방송에서는 남자 40대 타깃 시청률 1.75%를 기록했다.

### 아이템 외연을 확장한 〈관찰카메라24〉

9월 13일 첫 방송된 〈관찰카메라 24〉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방송된 〈관찰카메라 24시간〉의 두 번째 시즌으로, 8명의 VJ가 특정 장소를 24시간 관

“  
색다른 포맷과  
다양한 주제로  
차별화된 즐거움 기대”

찰하는 형식의 다큐멘터리다.

〈관찰카메라 24〉 시즌2는 8명의 카메라 군단이 24시간을 지켜보는 시즌1의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관찰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했다.

시즌1이 장소 위주였다면 시즌2는 인물, 이슈 등으로 아이템의 외연을 확장했다. 재미있는 시간을 더욱 집중 관찰한다는 뜻에서 프로그램 이름도 〈관찰카메라 24시간〉에서 〈관찰카메라 24〉로 변경했다.

〈관찰카메라 24〉 첫회는 제주 우도를 즐기는 방법을 여행정보백서로 엮었다. 2회 루프탑 천국 해방촌에 이어 수입차 전시장 24시간, 푸드트럭 24시간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변주하면서 관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 MC와 패널 교체한 〈풍문으로 들었소〉

〈풍문으로 들었소〉는 9월 18일 101회 방송부터 MC와 패널을 교체하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방송인 박수홍과 배우

박하나가 MC를 맡았고, 배우 유소영·가수 슬리피가 새 식구로 합류해 기존 멤버인 김가연·홍석천·이준석과 화끈한 입담 대결을 벌였다.

새로워진 〈풍문으로 들었소〉는 ‘프라잇 토크파티’를 콘셉트로 대중문화이슈 전반을 아우르는 토크를 펼쳤다.

9월 18일 방송에서는 연예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대한 후일담,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10대 폭력까지 폭넓은 토크를 이어가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거인의 어깨〉

‘트렌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거인의 어깨〉도 10월 중순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거인의 어깨〉에서 ‘거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있어 온 광대한 지식 집합체를 의미한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보라는 뜻이다.

〈거인의 어깨〉는 매주 한 가지 주제가 선정되면 지식 거인 고정 크루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강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거인의 이미지와도 잘 맞는 서장훈이 MC를 맡았다. 미학자 진중권 교수, 세계문화전문가 조승연 작가,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 정치학자 김지운 박사가 고정 지식 거인 크루로 출연한다.

그밖에 웹드라마 〈로맨스 특별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프로젝트 〈우리도 국가대표다〉도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로맨스 특별법〉은 완벽한 남자가 부족한 1%를 찾는 로맨틱 코미디 법정 드



〈도시어부〉 출연자인 배우 이덕화, 개그맨 이경규, 래퍼 마이크로닷이 전북 부안군 왕포마을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위). 〈관찰카메라24〉 ‘우도편’에서 8명의 VJ들이 우도 청진항 앞에서 360도 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아래). 〈풍문으로 들었소〉 새 진행자 박수홍과 박하나 포스터(왼쪽 아래).

라마다. 〈우리도 국가대표다〉에선 인기 아이돌들이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최고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 도전하는 모습

을 다룬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오지원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윤승이

## 동아와 함께 이색 스포츠에 도전하라

### ‘스파이더’ 컬러 미 라드’ 색다른 느낌 이벤트 관심

동아미디어그룹이 ‘펀(Fun)’과 ‘챌린지(Challenge)’를 결합한 이색 스포츠 행사를 마련해 젊은층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이미지도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

### 광장에서 즐기는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9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피트니스센터’로 변했다. 체력, 근력, 지구력, 순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피트니스 마니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에선 크로스핏(CrossFit)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크로스핏은 여러 종류의 운동을 섞어서 훈련한다는 뜻의 크로스 트레이닝(Crosstraining)과 신체 단련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를 합친 운동이다.

참가자들은 ‘달리기-턱걸이-달리기-푸시업-달리기-토스 투 바(바를 두 손으로 잡은 채 두 발끝을 동시에 바에 닿게 하는 동작)-바 터치 비피(두 손이 바에 닿도록 접힌 뒤 푸시업)-달리기’ 순으로 대결을 벌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중이 되면서 세종대왕 동상 주변은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8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컬러 미 라드’ 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컬러 워터를 온몸으로 맞으며 즐기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한 컬러 미 라드는 컬러 파우더를 뿌리고 맞으면서 달리는 이색 달리기 대회다.

### 색색의 즐거움이 있는 ‘컬러 미 라드’

8월 27일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열린 ‘컬러 미 라드’는 ‘색깔 있는 마라톤 축제’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기존 마라톤 대회와 차별화에 성공한 러닝 페스티벌이다. 참가자들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5km를 달리면서 1km마다 준비된 컬러 파우더를 맞으며 즐겼다.

올해 대회에는 핑크, 블루, 옐로우, 그린 등 4개의 컬러 스테이션 외에도 구름 위를 달리는 느낌을 연출한 클라우드 존, 컬러 워터가 쏟아지는 젤드롭 존, 컬러

물총 세례를 받는 워터건 존, 레인보우 레이저 조명이 비치는 컬러 나이트 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을 즐길 수 있는 DJ 부스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다.

이밖에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채널A는 10월 30일 강원 춘천에서 ‘2018 평창 성공기원 춘천컵 채널A 프로볼링대회’를 개최한다. 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경기는 채널A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안중산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맞아 심층교육

### 권익위 최신 해석-법원판단 등 7개사 임직원 1300여명 수강

동아미디어그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심층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교육의무가 있는 7개사(동아일보사, 채널에이, 동아닷컴, 스포츠동아, 동아사이언스, 동아이지에듀, 동아이앤디) 임직원 1300여 명은 교육을 마친 후, 청탁금지법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기본 내용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해석과 법원 결정, 판결까지 반영했다. 과거 청탁금지법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난 1년간 누적된 법원의 판단과 권익위의 해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교육 대상 전원이 현장강의를 받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직책자는 현장강의를, 일반사원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현장강의는 각 사별로 나뉘어 광화문 본사와 충청로 사옥, 상암동 DDMC 등에서 실시됐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적극 동참해 신뢰받는 언론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장수민



사내번호사가 9월 25일 오전 10시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고 있다.

# “채널A 예능은, <하트시그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재미-퀄리티 갖춘 신선한 기획... 채널A 역사 새롭게 써 해외서도 인기... 미국 스트리밍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은 <하트시그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술한 화제를 남기고 최근 종영한 <하트시그널>은 ‘시간 제한 동거’라는 신선한 기획과 섬세한 구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방영 기간 내내 온라인 트래픽, SNS 화제성, 디지털 매출 등 다방면에서 진기록을 세우며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썼다.

푹푹한 일반인 출연진에 대한 관심과 설렘은 팬덤 형성의 요인이 됐다. 매주 금요일 11시 11분에 방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포털사이트에서 <하트시그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7-8월에는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인 MBC <나혼자 산다>, Mnet <쇼미 더 머니 6>보다

높은 검색 순위를 이어갔다.

인기는 온라인 트래픽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에서 <하트시그널> 영상들의 조회수는 8회 이후 매회 100만 뷰를 넘었고, 결말이 공개된 12회는 무려 246만 뷰를 기록했다.

<하트시그널> 페이스북 페이지는 젊은층들의 ‘달달한 소통 공간’이 되면서 구독자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본격적인 리브라이니 시작된 3회 이후부터 구독자가 매주 2만-3만 명씩 늘어났고, 게시글은 최대 450만까지 도달하는 파괴력을 보였다. TV보다 SNS로 방송을 즐기는 젊은 세대가 <하트시그널>에 열광하면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한 것이다.

<하트시그널>의 인기는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매출로 이어졌다. IPTV, 채널A 홈페이지, YouTube 등에서 VOD가 불티나게 팔렸고, 디지털 광고 수입 실적도 높았다.

이런 인기의 비결은 물론 재미와 퀄리티를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가 보면 기존 채널A 예능 프로그램과는 다른 팬 층을 형성해낸 것이 인기를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중장년, 남성, PC 이용자들에게 어필한 반면 <하트시그널>은 20-49, 여성,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더 인기를 얻었다. 포털에서 <하트시그널> 영상을 본 10명 중 7명(68.4%)은



9월 1일 방송된 <하트시그널> 최종회에서 ‘시그널하우스’ 입주자 전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촬영 후일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종 커플이 된 장천-배윤경(위)과 신아라-강성욱.

20-49 여성이었다.

<하트시그널>은 감성적인 영상만큼이나 감정을 건드리는 배경음악의 인기도 높았다. 채널A 홈페이지에 서비스한 ‘BGM 리스트’는 매회 수 천-2만 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시그널 하우스의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기존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의 틀을 깬 <하트시그널>은 중방 이후에도 출연진

에 대한 관심과 리브라이니 되짚어보는 반응들이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시즌 2의 출연 문이가 쇄도하는 등 ‘다시 만날 하트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 콘텐츠 파트너들의 반응도 뜨겁다.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들이 <하트시그널> 콘텐츠 수급 계약이나 포맷 리메이크 요청을 보내오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스트리밍업체 드라마피버(Dramafever)와 이미 지난 8월 말 <하

트시그널>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마쳤다. 드라마피버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그룹 계열사로, 이용자가 8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스트리밍 전문 업체다.

이 외 미국 내 한국 콘텐츠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비키(Viki)와도 콘텐츠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영전략실 미디어플랫폼팀 김희균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 김수아

# “취업난 속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고리” 청년드림센터 ‘잡 페스티벌-잡 콘서트’ 성황

### 취업준비생들 입소문 퍼져 2곳 참석자 1만 명에 육박

9월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에게 의미가 큰 한 달이었다.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나 가을 간격으로 연이어 마련된 것.

9월 15일에는 고양시와 함께 한 ‘청년드림 잡 페스티벌’이, 9월 19일 김천에서는 경북보건대와 손잡고 마

련한 ‘GCH 청년드림 잡콘서트’이 성황리에 열렸다.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고양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역대 가장 많은 12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김천 행사에도 현대모비스, 이마트, CJ, 한국도로공사, 대상 등 5곳이 청년들을 맞았다.

해가 거듭할수록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대기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 7000명, 김천 2500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서울에만 집중된 취업박람회를 지방으로 확대시키는데 청년드림센터가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연수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장은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청년드림 잡 페스티벌과 잡 콘서트가 청년 구직자들과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드림센터 청년창업팀 강승현

# 축구도 ‘신방점영’ 시너지 효과

### 동아일보-채널A 주1회 공동연습 통해 ‘장점 흡수’



동아일보 기자 축구단과 응원단들이 9월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월 21일 열리는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를 앞두고 동아일보와 채널A 축구단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는 국내 주요 언론사 대부분(70여 개)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대회로 ‘언론계의 월드컵’으로 불린다.

지난해 우승(통산 3회 우승)을 차지한 동아일보는 우승팀답게 조직력, 기술, 체력 등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갖췄다. 올해도 역시 우승후보 ‘0’순위로 꼽히고 있다. 채널A는 지난해 첫 경기에서 동아일보를 만나 2대 1로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하지만 선취골을 뽑아내는 등 만만찮은 실력을 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올해 최대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 축구단이 정기적으로 함께 연습을 진행해 축구에서도 동아미디어그룹의 ‘신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9월부터 주1회 공동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채널A 공격수를 밀착마크하면서 수비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채널A는 동아일보의 조직력과 기술을 배우면서 체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각각 10월 21, 22일 토너먼트 1-3차전에서 승리하면 두 팀은 10월 28일 8강에서 만난다. 8강, 준결승, 결승은 모두 하루에 치러진다. 동아미디어그룹 모든 임직원들은 대회 때마다 하나로 뭉쳐 열광적인 응원과 지원을 보냈다. ‘아낌없는 응원’과 ‘화끈한 지원’이 훌륭한 성적으로 이어지고, 동아미디어그룹을 하나로 묶어 내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 축구팀 김기홍



사진=편집국 사진부 김재영

9월 1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잡 페스티벌’에서 청년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 동아일보-채널A 수습-경력 입사자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② 최종학교      ③ 전 직장
- ④ 입사 후 포부      ⑤ 요즘 관심사



**이지운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 ① 1991년
- ② 고려대 사회학
- ③ 신입
- ④ 바른 품성과 날카로운 판단력을 겸비한 외유내강형 기자로 성장하겠습니다.
- ⑤ 올 시즌도 뒤에서 2등입니다. 하위 팀 골수팬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익숙해져야 할 때인 모양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예전 모습을 되찾기를 고대합니다.



**김규리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 ① 1994년
- ② 연세대 건축공학
- ③ 신입
- ④ 말심(마지막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PD! 말심을 유지하겠다는 지금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⑤ 블랙 코미디와 강다니엘, 스탠드업 코미디와 강다니엘, 유병재의 한국식 코미디와 강다니엘의 머릿카락, 덧니, 눈웃음, 멍멍미, 아껴내비, 아냐, 그냥 강다니엘.



**전성원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 ① 1991년
- ② 서울대 환경재료과학
- ③ 신입
- ④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입사한 만큼, 고민과 탐구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흥행행
- ⑤ SF광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개봉을 앞두고 자기 전에 SF영화, 책, 다큐 하나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킹갓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읽고 있습니다.



**정인혁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 ① 1990년
- ②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경제학
- ③ 신입
- ④ 잘하는 PD보다 남들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PD가 되겠습니다.
- ⑤ 곧 이사를 합니다. 한동안 집에서 잠만 잘 것 같습니다. 숙면을 위해 난만 뜨면 라텍스 매트리스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윤솔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2년
- ② 고려대 사회학·신문방송학
- ③ 신입
- ④ 뿌리가 튼튼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초를 잘 다지고 싶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는 싹처럼 열매처럼 내실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 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니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운전도 일도 차근차근 잘 해내고 싶습니다.



**이민준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0년
- ② 동국대 신문방송학
- ③ 신입
- ④ 기자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선배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채널A의 기자로서 사건의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⑤ 축구를 하다 오른쪽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심사는 재활입니다. 조심스럽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발로 운동장, 현장을 뛰고 싶습니다.



**정다은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 ① 1993년
- ② 서강대 국제한국학·커뮤니케이션학
- ③ 신입
- ④ 믿을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 기자는 믿을 수 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⑤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 모든 목적지까지의 최단 동선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조종희 / 채널A**  
전략기획본부 플랫폼운영팀

- ① 1982년
- ② 서울사이버대 문화콘텐츠공학
- ③ MBN
- ④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호언장담보단 항상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⑤ 최근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모든 시즌을 정주행하고 마지막 시즌의 방영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 東友는 **몸신**이다

### 하루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한잔에... '다시마 미네랄 워터' 만들기

미네랄은 몸 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명 유지에 필수인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 수축을 원활하게 합니다. 미네랄 부족 상태가 누적됐을 때 피부노화, 만성피로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신>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다시마 미네랄 워터'를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마시면 노화를 늦춰주는 것은 물론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여 먹는 것이 체내 흡수에 좋습니다.

먼저 다시마와 면보, 생수를 준비합니다. 다시마를 손바닥 크기로 자른 후 깨끗한 면보를 물에 적셔 다시마 표면을 살살 문질러 닦아줍니다. 다시마를 물로 세척할 경우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닦은 다시마를 생수 한 컵에 넣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마를 건져낸 뒤 마시면 됩니다. 다시마를 우려낸 물이 비릿하게 느껴질 경우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나 과일을 함께 넣어 마시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다시마와 깨끗한 면보, 생수를 준비한다.



② 다시마를 물로 세척하면 미네랄 성분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깨끗한 면보를 물에 적셔 다시마 표면을 살살 문질러 닦아준다.



③ 생수 한 컵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다시마를 넣고 5분 정도 기다린다.



④ 다시마 물이 비릿하게 느껴질 경우 케일, 적양배추, 레몬 등 자투리 채소나 과일 활용을 함께 넣어 우려낸 후 마신다.

## 글로벌 캐릭터 '무민' 원화 국내 첫 전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일보 주최 '무민 원화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무민(Moomin)은 핀란드의 전설 속 트롤(초자연적 괴물)을 하얗고 동글동글한 몸매로 형상화한 캐릭터다. 1945년 핀란드 화가 토베 안손의 소설 속 삽화로 처음 만들어진 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지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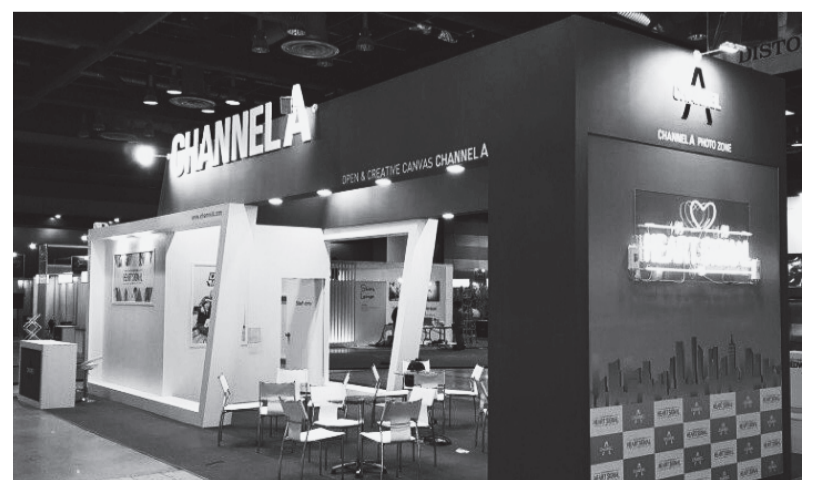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 '무민'

토베 안손이 직접 연필로 그린 무민 스케치와 채색 그림, 무민 관련 소품, 책 등 3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 무민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을 감

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전시는 11월 26일(일)까지 열린다. 입장료는 일반 1만3000원, 중·고생 1만1000원, 어린이(3~13세) 9000원. 문의 02-837-6611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 BCWW 참가한 채널A, 45개 해외업체와 콘텐츠 미팅



채널A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방송영상콘텐츠마켓(BCWW 2017)에 참가했다. 채널A 부스는 네온사인인 무민 <하트시그널> 포토존을 결합해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채널A는 행사 기간 동안 45개 해외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며 <도시어부>, <하트시그널> 등 주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논의했다.